

# 강태오 “저도 사랑엔 직진 스타일…키스신은 NG 많았죠”

JTBC ‘런 온’ 서연하남 미대생 ‘이영화’

“나이 먹기 전 연하남 역, 너무 좋았다”

“상대역 최수영, 잘 이끌어줘서 고마워”

tvN 드라마 차기작…“도전하는 배우로”

“20대 초반으로 돌아가게 해준 작품이에요. 첫사랑을 겪는 인물인데 ‘아, 나도 이런 시절이 있었지’ 기억나게 해주죠. 시청자들에게도 따뜻하고 잔잔하게 흘러가는 물처럼 청춘의 세월을 흘러보내는 흐릿한 기억으로 남길 바라죠.”

배우 강태오는 JTBC 드라마 ‘런 온’에서 밝고 순수한 매력의 미대생 ‘이영화’로 분해 안방극장을 사로잡았다. 연하남으로 ‘명몽미’를 뽑내고, 때로는 사랑에 직진하는 돌진구 모습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런 온’ 종영 이후 지난 8일 화상으로 만난 강태오는 “따스한 작품인 만큼 저도 치유가 됐다”며 “‘런 온’을 떠나보내면서 감독님과 배우들 ‘시즌 2’를 만들자고 했다. 기회가 된다면 너무 좋겠다”고 웃었다.

극 중 서명그룹 상속자이자 스포츠 에이전시 대표 ‘서단아’와 아슬아슬한 로맨스를 보여준 이영화는 연하의 미대생이다.

그는 “나이를 더 먹기 전에 연하남을 하게 돼 감사하다. 노안이라고 농담하며 대학생 역할에 부담감을 느끼지 않나고도 하는데, 저는 너무 좋았다”며 “사실 미대생의 부담이 컸다. 청량한 이미지를 잘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캐릭터가 워낙 재밌어서 잘 그

려졌다”고 말했다. 미대생 역할을 위해 실제 화가에게 그림을 배우기도 했다.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해서 감독님의 지인인 화가님에게 도구를 잡는 법이나 용어를 배웠어요. 극 중 영화의 그림도 그분이 그려주셨죠. 이번에 저도 그림에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최수영과 키스신, 인중에 뽀뽀해 NG 많이 나”**

드라마 속 이영화는 나이, 직업 차이가 있지만, 서단아를 향해 직진한다. 강태오는 “결국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해 다가갔기에 부담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저도 사랑하면 직진하면서 마음을 많이 내주는 스타일이죠. ‘영화’의 마음이 저랑 닮은 것 같아요. 누구나 사랑하면 그렇게 될지 않을까요. 그래서 연기로 분석할 때 편했어.”

이영화의 매력으로는 친화력을 꼽았다. “영화는 귀여워요. 어떤 인물과 붙어봐도 잘 어울리죠. 친화력이 최고인 매력이에요. 대화하는 스타일이나 단어한테 하는 솔직한 표현력이 저와 닮았어요. 제가 영화보다는 조금 덜한 편이죠.”

애교가 폭발하는 영화의 모습엔 “힘

들었다”며 수줍어했다. 그는 “애교가 원래 많지는 않다”며 “산책시켜주세요, 명!”이라고 말할 때는 부끄러웠다. 담백하게 할 수 있도록 수영 누나가 많이 도와줬다”고 웃었다.

상대역인 서단아를 연기한 최수영에게는 고마움을 전했다. 최수영이 현장 분위기에 킁키했다”고도 했다.

“이 작품으로 처음 만났는데, 많이 놀랐어요. 캐릭터와 상황을 분석하는 게 남달랐죠. 본인 캐릭터를 연구하는 건 당연하지만, 서단아를 사랑하는 만큼 이영화 캐릭터도 같이 사랑해줬어요. 이렇게 해야 더 설렘 것 같다고 팀도 알려주고 많이 배웠죠. 누나가 저를 많이 이끌어줬어요.”

키스신 촬영을 할 때는 NG가 많이 났다고 했다. 로맨스를 펼치며 최수영의 연인 배우 정경호의 눈치를 보진 않았느냐는 물음에는 “조금 보긴 했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어떻게 해야 그림이 예쁘게 나오고 박력 있어 보일까, 누나와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런데 자꾸 인중에 뽀뽀하게 돼서 키스신을 찍을 때 NG가 많이 났죠. 재미있게 촬영했어. 추운 날 벌벌 떨면서 촬영했던 기억도 나고 크고 작은 일들이 모두 추억이었어.”

**“정적이고 조용한 캐릭터 해보고 파…소나무처럼 우직한 배우 목표”**

단거리 육상 선수 ‘기선검’ 역의 임시완과는 브로맨스로 재미있는 장면들을 연출했다. 강태오는 “선검과 영화가 함께 지내며 열치러워지려는 은근한 재미를 다들 좋아했다”며 “선검에게 렌즈를 끼워주는 장면 등 열정적으로 찍었다. 잘 편집해주셔서 케미가 잘 살아날 수 있었다”고 흐트해했

다. 영화 번역가 ‘오미주’ 역의 신세경은 큰 힘이 됐다. “빨리 친해졌어요. 누나가 현장에서 늘 챙겨주고 배려해줬죠. 제가 초반에 살짝 긴장도 했는데, 세경 누나가 세심하게 말을 건네줘서 고마웠고 큰 힘이 됐죠.”

넷플릭스를 통해 ‘런 온’이 공개되면서 해외 팬들의 사랑도 받았다. 그는 “SNS에 팬들이 댓글을 많이 남겨준다”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랑해주셔서 너무 영광이다. 보답하는 방법은 결국 더 좋은 작품과 캐릭터를 보여드리는 것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캐릭터를 해보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드라마 ‘조선로코-녹두전’ 때는 약당 역을 했었고, ‘런 온’에서는 밝고 통통 튀는 매력을 보여줬다. “정반대로 정적이고 조용한 캐릭터도 한번 해보고 싶다”며 “상처로 인한 트라우마와 아픔이 있는 인물이 성장해가는 그런 역할을 하면 재미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강태오는 tvN 드라마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의 ‘이현규’ 역으로 상반기에 시청자들을 다시 만난다.

그는 “‘런 온’ 영화와 분위기가 비슷한 면도 있는데, 현규는 자기 일을 중시하며 사랑에서 도망친다. 몇 년 후 첫사랑과 재회하며 사랑에 대한 후회를 시작으로 성장통을 겪는 인물”이라며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지난 2013년 웹드라마 ‘방과 후 북북북’으로 데뷔한 강태오는 앞으로도 소나무처럼 우직하게 열심히 도전하는 배우가 되고 싶다고 했다. “앞만 보고 달려왔던 시간이 짧게 느껴진다”



며 “10년, 15년 뒤에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다”고 했다.

“사실 두려움도 많지만, 다양한 캐릭터에 도전해보고 싶어요. 제 한계가 궁금하고 그 벽을 허물고 싶죠. 앞으

로도 연기 인생은 쪽 ‘런 온’하겠지만, 지금처럼 한결같은 모습으로 있고 싶어요. 연기적으로도 차근차근 발전해 나가며, 소나무처럼 우직하게 단단한 모습으로 있고 싶죠.”

## 방탄소년단 RM “멤버 여섯 명 함께 있다는 것 정말 감사”

오는 19일 ‘BE’의 새 버전 ‘BE’(Essential Edition) 발매



“우리 결연 서로를 이해하는 최소 6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세계적 7인조 그룹 ‘방탄소년단’(BTS) 리더 RM은 8일(현지시간) DJ 제인 로어가 진행하는 애플뮤직의 ‘에센셜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방탄소년단 멤버들인) 여섯 명이 함께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영국 음악잡지 NME 등에 따르면 이날 인터뷰에서 방탄소년단은 삶에

감사하고, 매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제이홉은 “제 인생의 좌우명은 항상 감사하고 그 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고 전했다.

또 그는 저스틴 비버의 ‘론티(Lonely)’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어떤 비슷한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고민을 해왔다”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견뎌야 하고, 그것을 통해 스스로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긴

다”고 설명했다.

RM은 “우리는 대규모 경기장 콘서트와 빌보드 핫 100 1위곡을 가진 가장 운이 좋은 사람들 중 한 명”이라고 덧붙였다.

방탄소년단이 지난해 11월 공개한 새 앨범 ‘BE’의 타이틀곡 ‘라이프 고스 온’은 코로나19 시대에 위로를 전했다. 특히 앨범 제작 과정을 처음으로 팬덤 ‘아미’에게 공개하기도 했다.

RM은 “지금 이 모든 상황(코로나19)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보여주는 단어가 있다면 그건 ‘거리’일 것”이라고 전했다. “지금은 비행기를 타거나, 대규모 콘서트를 열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거리를 무너뜨려보자, 장벽을 무너뜨려보자는 생각을 했고,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거리감을 좁히려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오는 19일 ‘BE’의 새 버전인 ‘BE’(Essential Edition)를 발매한다.

내달 14일(현지시간) 열리는 ‘제63회 그레미 어워즈’에서 최우수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상 후보에 올라 있다.

## ‘송가인 영화’ 설 연휴 통할까…개봉 이벤트 풍성

전국 메가박스서 예매 오픈…내일 단독 개봉

올해 설 연휴 송가인 영화가 극장가에 찾아온다. 지난해 추석 시장을 공략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팬미팅 영화에 이어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다. 메가박스에는 가수 송가인의 첫 번째 영화 ‘송가인 더 드라마’의 예매 오픈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11일 전국 메가박스 98개 지점에서 단독 개봉한다.

‘송가인 더 드라마’는 송가인의 첫 번째 단독 콘서트 ‘가인어라’ 실황과 미공개 영상, 진솔한 이야기를 담으며 그의 가수 인생을 돌아본다.

메가박스 측은 “트로트퀸으로 자리매김한 송가인의 자전적인 영화인데다, 메가박스의 선명한 스크린과 생동감 넘치는 사운드를 통해 실제 콘서트 현장에 와있는 듯한 몰입감을 경험할 수 있어 개봉 전부터 팬들과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다. 이번 영화 개봉을 기념해 팬심을 사로잡을 스페셜 굿즈도 선보인다. 개봉 당일인 11일에는 현장에서 당일 관람 티켓을 소지한 고객에 한해 송가인 브로마이드를 선착순 증정한다. 17일부터 23일까지 메가박스 멤버십 전용 ‘포인트 몰’에서는 추첨을 통해 송가인 사인 CD를 준다. 유료 관람한 멤버십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17일 오후 2시에 오픈되는 ‘메가 7 포인트 워크’ 100포인트 응모딜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메가박스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송가인 친필 사인이 담긴 자서전 ‘송가인 어라’, 송가인 팬넬, 대형 포스터 등 경품을 제공한다.

메가박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친 관객들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영화이자, 부모님을 위한 최고의 효도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설 연휴 잠시나마 모든 근심 걱정을 잊고 따뜻한 힐링의 시간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공포 토크쇼 ‘심야괴담회’, 정규편성…다음달 첫 방송

국내 최초 괴담 스토리텔링 챌린지 프로그램



오랫동안 괴담으로 시청자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괴기·공포·미스터리 토크쇼 MBC 예능 ‘심야괴담회’가 정규 프로그램으로 돌아온다.

8일 MBC에 따르면 두 달여 만에 정규 프로그램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심야괴담회’는 오는 3월 중 첫 방송 예정이다.

‘심야괴담회’는 지난 1월 파일럿으

무엇보다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생생하게 공포를 전달하는 출연진이다. 김숙의 ‘모텔에서 들리던 소리’는 소름 돋는 귀신 박수 재연으로 현재 클립 조회 수가 19만을 돌파했고, 귀신보다 김숙의 환자가 더 무섭다는 댓글이 최대 추천 수를 받았다.

‘심야괴담회’는 3월 방송을 앞두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랜선 방청객과 괴담을 공모받고 있다.

할머니가 들려준 신비로운 이야기, 군대·학교·여행지에서 겪은 공포스러운 사건 등 각종 다양하고 괴이한 이야기를 공모받은 뒤, 선정된 공모작에는 파격적인 액션상금 44만4444원을 지급한다.

## ‘스위트홈’ 김남희, MBC ‘미치지 않고서야’ 합류

상반기 방송 예정

배우 김남희가 상반기 방송 예정인 MBC TV 새 수목드라마 ‘미치지 않고서야’에 캐스팅됐다.

디에이와이엔터테인먼트는 9일 “김남희가 ‘미치지 않고서야’에 출연한다”고 밝혔다.

‘미치지 않고서야’는 드라마 ‘주몽’, ‘선덕여왕’, ‘여자를 울려’의 김근홍 PD와 ‘마녀의 법정’, ‘동안미녀’ 등을 쓴 정도윤 작가가 의기투

합한 작품으로, 격변하는 직장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청년들의 치열한 생존담을 그린다.

김남희는 상사들의 뒷목을 잡게 하는 눈치 제로 프로 일침러 ‘신한수’ 역을 맡았다. 비록 눈치는 없지만 AA급 핵심인재로 주인공 ‘최반석’(정재영 분)과 케미를 펼칠 예정이다.

김남희는 2013년 영화 ‘청춘예찬’으로 데뷔했다. 드라마 ‘미스티 선샤인’, ‘검색여를 입려주세요



WWW’ 등에 출연했다. 지난해 12월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스위트홈’에서 국어교사이자 기독교 신자인 ‘정재현’ 역을 맡아 큰 사랑을 받았다.